

## 바라밀현장

식당운영 명법사 신도들

# 스님은 서빙, 신도는 주방 일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10월-참회의 달

- 참회는 신행의 좌표
- 포살법회 되살리자
-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 참회의 방편
- 일상에서의 참회

참회는 신행의 좌표

“내게 오는 고통의 원인을 내 안으로 돌리다보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찬불가 모인인 '자비실천 찬불가회'를 이끌며 교도소 포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에 전념하고 있는 한 대각행(65) 회장. 절에 다니는 해도 육신을 괴롭히는 병고와 주변을 향한 원망으로 편할 날이 없었던 한회장의 삶에 변화를 부른 것은 '진실한 참회'였다.

삶의 고난이 크면 글수록, 그 원인을 자신의 내부로 돌리려 노력하다 보니 '지금 내가 받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타인에게 알게 모

음으로써,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참회는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 전체의 규범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화 작용을 해준다. 참회가 공론화되고 대중적으로 녹아든 의식이 초기불교부터 착실히 이행되어온 의식이 포살법회다. 매월 보름과 그믐 2차례씩 열렸던 포살법회는 대중이 모인 가운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타인의 허물을 감싸안아 주는 대중 화합의 장이 되어왔다.

광복이후 50회째 매년 3천배 참회기도를 열고 있는 감로사 주지



명법사 총무 화성스님과 신도들이 손님들을 위한 점심 상을 준비하고 있다.

학생 80여 명에게 매일 도시락 배달로 점심을 해결해 주고, 일요일마다 열리는 노숙자 무료급식을 통해서도 매일 2백여 명이상이 식사를 한다. 이런 명법사 신도들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개신교와 천주교까지 무료급식에 가세, 현재 평택역 앞에서는 매일 무료급식 봉사가 이뤄지고 있다.

또 하나의 봉사는 식당 '속리산'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 전액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이다. 지난해 명법사 신도들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한 결과로 모은 3천여 만원을 결식학생 지원 사업, 실직 가정 학생 장학금 사업, 네팔 대성석가사 조성 등을 위해 썼다. 올해도 벌써 매달 3, 4백만원씩 빠짐없이 불우 이웃 돕기 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명법사 신도들은 매달 한번씩 일요일 예불 시간에 참석, 이달의 봉사활동 중에 잘못된 점이 없는가를 살피면서 봉사를 수행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평택=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a.com

법좌에 올라 근엄하게 법문을 해야 할 것 같은 스님의 자리는 돈 계산하는 카운터, 음식 서빙을 맡은 종업원들 아담은 '무슨 보살님', '무슨 거사님'. 서로에게 떠넘기기 일쑤일 것 같은 설거지, 음식 쓰레기 버리기도 서로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평택시 도십포교당인 명법사의 신도들이다. 그리고 지금 다루어하는 일은 자원봉사 활동이다. 식당 일이 어떻게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을까?

명법사 신도들은 지금부터 2년 전인 2000년부터 새로운 신행방법을 실험하고 있다. 식당 운영을 통해 불자들이 보

### 신도 100여명 무주상보시 1천일 정진

### 산채식당 '속리산'서 장보기·조리·청소

### 결식아동에 도시락 제공·노인 무료급식도

시를 실천해 보자는 것. 이런 생각은 식당 운영을 하며 신도들간 친목을 도모하고 수행도 함께 하되,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자는 취지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그래서 2000년 10월 명법사 신도 1백여 명은 명법사(주지 순형스님) 스님을 앞세워 '무주상 보시 1천일 기도 정진'을 서원하고 지금까지 산채음식집 '속리산'을 운영하고 있다.

명법사 총무 화성스님은 "혼자 하다보면 쉽게 지쳐서 그만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자끼리 모여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자"는 생각에 이런 일

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한다.

명법사 신도들의 보시 바라밀 실천은 단순하다. 식당 문을 여는 새벽 6시부터 문을 닫는 저녁 12시까지 새벽반, 아침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청소반으로 나뉘어 장보기, 청소, 음식 조리, 서빙, 계산 등 식당일을 한다. 그리고 임금으로 받을 수익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재물 보시를 실천한다.

명법사 신도들은 식당 운영 시간을 쪼개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평택역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급식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평택기계공고, 청담중학교 결식

아를 전 마사이사이상을 수상하여 불자는 물론 온 국민들에게 기쁨을 선사했던 스님을 두고 시비하는 한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마음이 언짢았다. 평소 스님의 올곧은 불교관과 청정한 생활, 그리고 불교인 누구도 실천하기 어려운 갖가지 구제 사업의 결과를 눈여겨

## 마음비추기

### '나'를 죽이면 '모두'가 산다

다음은 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다. 스님은 지난 날 알았했던 독재정권 시절에 집시법 위반인이 된 가 하는 죄로 모처에 끌려가 무지막 지하게 얻어맞은 일이 있다. 두려움과 억울한 심정이 뒤섞인 가운데 매 맞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것이 있었다. 엉뚱하게도 그것은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냇가에서 장난으로 개구리들을 잡을 때의 광경이었다. 스님의 막대기에 맞는 개구리들이 죽을 때 사지를 떨며 뿜는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스님에게 '아, 내가 죽인 게 되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스님은 오늘날 자신이 펼치고 있는 일련의 불사들은 그때 얻은 순간의 경험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 아닌가 싶다고 말씀하셨다.

위 가운데 선행의 결과인 기쁨은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려고 하지만, 악행의 결과인 고통이 찾아오면 이를 회피하려고나 면하려고 발버둥친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악업의 결과가 찾아올 때 이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인과를 받으면 그 인과를 얻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다음에 다시 찾아온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처님 앞에서 과거의 업장을 참회한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닥쳐올 악업의 결과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참회는 자신을 속이고 부처님을 기만하는 비겁한 행위다. 인과를 믿는다면 인과를 받겠다는 자제가 참회의 본질이다.

### 참회는 반성아닌 마음 바꾸는 일

### 보다 나은 삶을 살게하는 원동력

“참회는 신행의 좌표, 포살법회 되살리자, 참회를 통한 자기변화, 참회의 방편, 일상에서의 참회”

“참회는 반성아닌 마음 바꾸는 일, 보다 나은 삶을 살게하는 원동력”

혜중스님은 "참회는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가꾸는 노력이자 깨달음을 향한 정진이 된다"고 참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생명 해친 무거운 죄 참회하십시오. 도둑질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거짓말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꾸밈말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이간질한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나쁜 욕설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탐욕부린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나쁜 성냄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어리석어 지은 무거운 죄 모두 참회하십시오." (십이참회(十惡懺悔))

천미희 기자

## 동안거 선수행 동참안내

## 불교식 실버타운(수광원) 등장

도피안사 수광선원(壽光禪院)에서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인 달궁거사 조홍식 박사와 함께 이번 동안거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달궁 거사님은 올해 83세로 일찍이 송광사 구산대선사 문하에서 선수행을 시작한 이래 30년이 넘게 줄곧 정진해왔습니다.

또한 평생 생뉘뉘배리를 연구한 불문학자로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인 달궁 거사님은 오랜 선수행의 체험을 토대로 특히 초심자들에게 자세하고 쉬우며 깊이 있는 선의 세계로 안내할 것입니다. 참선 공부를 원하는 분들의 동참 바랍니다.

- 입방인원 | 10명(재가 불자, 접수순에 의해)
- 동참금 | 30만원(90일, 결제기간)
- 입방일 | 11월 18일, 11시까지 도착
- 연락처 | Tel · 031-676-8700 / Fax · 676-8704
- E-mail · dopiansa@kornet.net

※ 달궁거사 조홍식 박사의 저서인 '선심심' 출판기념회참가 10월 6일(일)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있습니다. (당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8번 출구 국민은행 앞에서 오전 9시 정각, 도피안사행 차량이 출발합니다.)

1. 도피안사는 금하당 광덕대선사를 개산조로 모신 보현도량입니다.
2. 수광원(壽光院)은 가족같은 친밀감으로 형성된 불자형제들의 수행공동체입니다.
3. 서울에서 가까운 안성시 죽산, 용설호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4. 서울행 직행 노선버스가 15분마다 다닙니다.(남부터미널 - 진천행)
5. 법회가 자주 있어서 입주자들은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6. 입주 비용이 다른곳에 비교하여 저렴하고 청소년 수련원이 함께 있어 활기가 넘칩니다.
7. 지금 신청하는 분들은 황토 기와집에 입주하여 살 수 있습니다.
8. 나이제한이나 성별구분이 없으며 원하는 분은 누구나 입주 할 수 있습니다.
9. 의학박사가 상주하여 건강에 대한 조언과 지도를 합니다.
10. 도량둘리를 통해 누구나 적절한 운동을 자연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 청소년들과 신도들의 봉사활동이 끊이지 않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광원에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이나 관심을 가진 분들은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궁금한 점은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Tel · 031-676-8700 / Fax · 676-8704  
E-mail · dopiansa@kornet.net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전법대본산 도솔산 도피안사 · 법주 금하광덕  
반야바라밀결사보현도량 · 주지 송암지원  
우456-893,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리 1178-1